2017년 신년 제 1강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말씀 : 디모데전서 4:1-16
요절 : 디모데전서 4: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Happy New Year!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정유년(丁酉年) 닭의 해입니다. 닭은 옛날부터 앞으로 닥쳐올 일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지혜로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닭은 체력이 약해 끝마무리가 좋지 못하다고 하니 이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끝까지 개인 신앙성장에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는 AD 63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나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를 방문하던 중 에베소를 거쳐 마케도니아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의 주요 내용은 복음진리에 대한 가르침(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질서와 신앙, 교회 직분자의 자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자(목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면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기에 힘쓰다 보면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개인적인 신앙성장에 힘을 써야 합니다. 디모데와 같이 젊은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캠퍼스에 진리를 선포하고 양들을 섬기도록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차게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Ⅰ.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1-5)

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1) 이 말씀은 말세에 나타날 배교(背敎) 현상과 이단(異端)의 창궐(猖獗-세차게 일어나 걷잡을 수 없이 퍼짐)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말세에는 믿음으로 살던 신자들까지도 믿음에서 떠나 이단에 빠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경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막13:5,6). 그러면 배교하는 자들과 기독교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떠난 자들입니다.(1a) 이들은 성경의 바른 교훈 즉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 진리를 버린 자들입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습니다.(1b) 복음 진리를 떠날 때 이들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 즉 미혹하는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거짓말하는 영 즉 사탄의 영을 따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2) 옛날 노예에게는 신분 표시를 하기 위해 인두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딱딱하게 굳어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양심이 무디어지고 마비되어 도덕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거짓말쟁이요 위선자들이 됩니다. 금욕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3)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3) 대부분의 이단들이 양심이 화인 맞아 부도덕한 생활을 하지만 일부 이단 중에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단인 금욕주의자(禁慾主義者)들

은 영지주의와 유대교의 한 분파인 엣세네파의 극단적 금욕주의가 혼합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원론에 근거해 영혼은 완전히 선하고 육체는 완전히 악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더 나아가 육체뿐 아니라 몸에 관계된 것은 다 악한 것으로 인간의 본능과 신체의 기능도 악하고 세상 만물도 악하니 천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3a)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들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3b-4) 바울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였습니다. 혼인(결혼) 역시 하나님이 친히 제정(制定)한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창2:18) 우리가 육신적인 생활에 탐닉(耽溺-어떤 일에 빠져서 온통 마음이 쏠리다)하는 것은 절제해야 되지만 결혼 생활 자체를 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음식물도 채식(菜食)이건 육식(肉食)이건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우리에게 식물로 준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몇 가지를 금하긴 하셨지만 이것도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고전10:31)

복음의 종들은 위장된 인본주의적 진리들 즉 믿음에서 떠난 다른 교훈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목자는 세퍼드(Shepherd)로서 지키는 자입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이러한 이단 사상들을 분별하여 싸우고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된 양들을 깨우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오랜 인내와 사랑의 수고, 눈물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언성을 높여 가며 치열한 영적 싸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 자신이 양육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사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며 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복음의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기 시작하면 형제의 믿음이 자라나고 양육(養育)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도 성장하고 양육을 받게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Teaching is Leaning)이라는 말이 있으며,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서로를 향상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생활에 헌신할 때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라고, 가르치면서 또 한 번 자라게 됩니다.

Ⅱ.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7-10)

사도행전 17: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들 즉 그리스 철학자들은 가장 새로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삶의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는 수많은 신화(神話)가 생겨났습니다. 또 그리스 노예 출신인 이솝이 지은 우화(寓話 Aesop Fables)가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주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읽고 나면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신들이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는 이야기를 읽고 나면 신도 인간과 별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단들은 유대의 신화나 족보(族譜)에 대한 이야기 거리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

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늙은 여자들이 여기에 많이 빠졌습니다. 한참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나 열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를 부지런히 묵상하고 가르치되 영적인 유익이 없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디모데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7) 허탄한 신화는(old wives' tale) 늙은 부인이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이야기로 밑도 끝도 없는 허황된 이야기를 말 합니다. '경건'(유세베이안, godliness)이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공경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칼빈(Calvin)은 '경건을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윌리암 로우는 '참된 경건은 헌신으로 나타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며, 하나님만 생각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마음과 생각 전체를 하나님 생각으로 사는 삶이며 언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시16:8)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권나제, train, 훈련)이란 현재 명령형으로 권면이 아니고 명령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단이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로마 시대에 인기 있던 종목은 달리기와 격투기가 있었는데 이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대비해 연습하던 것을 가리킵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이나 사건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스포츠나 음악, 미술 등의 방면에서 세계 정상(頂上)에 오른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과 끝없는 연습을 통하여 위대해진 것입니다. 정상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며, 끝없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운동선수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은 오직 부단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꽃피어나게 됩니다. 타고난 재능과 가능성 잠재력을 가진 선수라 할지라도 연습을 게을리 하면 결코 훌륭한 선수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꾸준히 연습하는 자는 아무도 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의 발전에 있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시합에서의 승패는 평소에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력(努力)은 더 중요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따를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능과 잠재력은 다소 부족할지라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하여 선수로서 대성(大成)하게 되는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은 꾸준한 야간 연습을 통한 혹독한 체력 훈련이 긴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기를 풀어낸 비결(秘訣)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영선수 박태환은 어려서 호흡기를 단련하려고 수영장에 갔지만 물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엄마가 물속에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고 그것을 가져오도록 해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다고 합니다. 그가 오늘의 세계적인 선수가 된 데는 피나는 연습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는 피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7살 때부터 천식을 앓았습니다. 수영은 천식 어린이가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물속에서 재능을 보이는 어린 소년을 전문 수영 선수로 키우려고 훈련을 통하여 몸의 유연성과 부력, 폐활량 등을 키워 갔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하여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거듭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고 2004년, 15세의 어린 나이에 아테네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형 400m 예선에서 너무 긴장하여 준비하는 소리에 그만 물속으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부정 출발을 한 것입니다. 육상에서는 부정출발을 하여도 한 번 기회를 주지만, 수영은 육상처럼 부정출발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퇴장해야만 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start 신호에 민감하게 적응하는 훈련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면서 피나는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박태환은 2008년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기 전까지 각종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면서 담력과 승부욕을 키워갔고 결국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피나는 start 훈련을 통해 결승전에서도 가장 빠르게 start 한 것이 그를 금메달리스트가 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지성, 박세리(공동묘지 담력훈련),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정상(頂上)에 오르게 되었는가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 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경건에 이르도록 이처럼 연단(연습)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 왜 연단(연습)이 필요합니까? 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죄악 된 본성(本性)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은 언제든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들과 세속적인 관심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경건이 무엇이고 경건 생활의 유익이 무엇인지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경건을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고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먹어간다고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수없이 듣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훈련을 통해 되어 집니다. 또한 우리는 이기적인 것이 죄이며 봉사와 헌신이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연습하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남들을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경건 생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8)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이라는 말은 '얼마간, 잠시'의 뜻으로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마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젊은 날 육체를 연단하면 건강함으로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건강하니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병원비 안 들어 좋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연단(훈련)은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만기는 씨름으로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여 천하장사가 됨으로 돈도 벌고 대학교수까지 되어 명예도 얻었습니다. 야구 선수, 농구 선수들이 물질과 명예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단련합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연단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간 즉 잠시 뿐입니다. 운동선수로서 나이 40이 넘으면 퇴물로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찬밥 신세가 됩니다. 이처럼 육체의 연단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얼마 가지 못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유익이 극히 부분적이고 피상적이라 내면에 기쁨을 주지 못 합니다. 또한 현세에만 유익을 주지 내세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못 합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어떠합니까? 범사(凡事)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금생과 내생에 약

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살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극심한 불안과 죄의식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 일수록 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니까 밥맛도 나고 잠도 깊이 잠으로 건강해 집니다. 그래서 장막 생활을 하면 못 먹는 것 같은데 살은 찝니다. 과거에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 무엇을 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은 내면의 욕심과 죄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됨으로 진정한 참 만족을 맛보게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자신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사소한 감정 문제, 감상주의에서 벗어나 자신감 넘치는 밝고 박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Vision이 있으므로 현실에 매이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고후6:10) 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백발을 휘날리며 대학생들과 일대일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또한 경건 훈련으로 연단된 자만이 세속으로부터 그 자신을 보호하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내적으로 강건하고 여유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생의 약속 즉 영생(永生)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면 몇 년 후 입주를 하듯이 우리는 잠시 수고한 후에 천성 파크맨션에 입주를 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유익입니까?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본문 전체적으로 볼 때,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적인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내면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성경읽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연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운동선수에게 훈련의 목표가 있고 규율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훈련은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신17:19a)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읽는다는 것은 신문을 읽는 것처럼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해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저자의 의도를 듣고 이해하기까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방향이 필요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도록 준비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3:15-17). 성경 말씀을 알아야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경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공부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 찔리게 함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가르쳐 주고 경건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는 탐심과 이기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성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온전히 갖추게 해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默想)하는 사람입니다.(시1:2) 시편 119편을 '말씀장'이라고 하는데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시119:103) "주의 법을 사랑하여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였습니다.(시119:97)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골2:3)

다음으로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훈련을 계속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22:42)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경건에 이른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신앙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잠시만 멈추어도 금방 답답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을 때 신앙생활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호흡을 멈추면 사람이 죽 듯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기도 시간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가장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1:35) 또한 소감 쓰는 것 일용할 양식 먹는 것도 좋은 연단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매 주 한 편의 소감을 쓰고 발표하고 듣는 것은 가장 적절한 경건의 훈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탁류(濁流)와 같은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어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학 때 하는 말씀 훈련, 그때그때마다 받는 물질 훈련, 전도훈련, 섬김의 훈련, 절제하는 훈련, 유혹과 시련과 역경을 견디는 인내 훈련 등 영적 훈련들도 다 경건에 이르는 좋은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 내면에 자립정신, 겸손, 도전 정신이 새겨집니다. 우리는 훈련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유익(有益)한 것입니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훈련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반드시 훗날 손해 보거나 나이가 들어 곱 배기로 누적 계산하여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날 훈련받는 것이 훨씬 축복이고 좋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훈련하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의 중요성을 말한 바울은 감격하여 외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9,10)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보장하는 경건의 유익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믿고 붙들만한 영적 진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연단을 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실천 과제로 삼도록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단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투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을 사모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 나는 대로 설렁설렁 연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힘쓰라고 합니다. 우

리 학생들은 할 일이 많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전공, 아르바이트, 동아리 활동 등. 그러나 신안 성장을 위해서 영적 훈련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인생입니다. 세상 친구들이 밤새도록 비디오 보고 게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가치관입니다. 피곤하다 생각하면 즉시로 스피릿이 사라지고 무기력해 집니다. 하지만 훈련을 귀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면 피곤을 이기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 쉴 새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피곤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살아 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10). 우리가 이렇게 경건을 위해 연단하고 수고하고 힘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세주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10).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있다면 영적인 연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트니스 클럽'(fitness club, 헬스)에만 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몸 짱'이 아닌 영적인 생명을 얻고, 이 시대를 섬기는 캠퍼스의 목자가 되는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며 힘쓰고 연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일꾼은 이렇게 자신을 연단하는 자입니다

새해를 맞으면 우리는 누구나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지난해보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 한데 있습니다. 게으르고 안일한 사람은 아무런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연단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훈련에는 많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인내가 요구됩니다. 안일하고 쉽게 되는 일이란 없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성장하고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불경건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소외(疏外)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경건의 시대정신과 조류를 거슬려 살고자 하니 손해를 당할 때도 있고 희생을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쓸 수 있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이유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경건하게 일생을 살다간 위대한 성도입니다. 스데반이란 이름 자체가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애 자체가 바로 면류관(冕旒冠)이었습니다.

Ⅲ.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11-16)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11,12a)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 개척되었습니다. 연로(年老)한 장로들과 집사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연소함(네오테토스, 젊음)이란 군대 갈 나이에서 대략 40세까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존경을 받았고, 연소한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어리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소함으로 인하여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업신여김을 받는 대신 오히려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는 Leadership을 가지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에 힘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째,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12b)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도 바울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5가지 삶의 영역에서 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말’(로고)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경박하고 인간적인 사람은 경박하고 인간적인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이중적인 사람은 교회에서나 공적인 모임에서는 신앙적인 말을 하지만 사적인 대화에서는 비신앙적이고 인간적인 말을 함부로 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가 많을지라도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나이는 연소할지라도 그 언어생활이 은혜롭고, 덕이 있고, 영적이면 그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행실’(아나스트로페)은 실제적인 삶으로 공석과 사석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 실제 행실이 다르면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아가페)은 이기심을 넘어선 타인에 대한 관심이며 희생적인 삶과 헌신입니다. 항상 남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존경스럽습니다. ‘믿음’은 어떤 일에 부딪쳐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내면성입니다. ‘정절’(하그네이아)은 그리스도께 바치는 충성이며 순결성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때 그는 비록 나이는 연소할지라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이나 연인들 사이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고 변함이 없고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소유할 때,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가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과 소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인내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죄인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롬5:5) 영적 지도자의 권위와 Leadership은 연륜이나 경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직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권위와 Leadership은 남에게 본이 되는 거룩한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권위와 리더쉽은 이런 거룩하고 비범(非凡)한 삶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본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지도자의 말보다도 행동을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13)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13) 여기서 ‘읽는 것’(아나그노세이)이란 자기가 맡은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주는 것, 공중 앞에서 성경을 공적으로 읽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권하는 것’(파라클레세이)은 권면의 말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디다스칼리아)은 가르치는 행위, 교육을 강조하는 개념(槪念)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은 사람의 영혼을 얻는 일입니다. 세상을 방황하는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이요, 어린 영혼을 양육하는 일이요,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전념한다.’는 말은 마음을 집중하여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칠 메시지를 간직할 수 있고, 힘 있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이 일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할 때, 이 일에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읽어 준 내용에 대해 그 의미를 풀어주고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본문에 기초한 성경공부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칠 때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길은 유능한 성경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능한 성경 선생이 되어 충성되게 가르칠 때 연로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고 했습니다.(15)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15) ‘이 모든 일’이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거룩한 생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등을 가리킵니다. ‘전심전력하라’(멜레타)는 말은 ‘이것들을 힘써 행하고 이것들 안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에 네 자신을 푹 담그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것들에 네 자신을 헌신하라. 그것들을 네가 몰두하는 관심사로 만들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본이 되고 가르치는 면에서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합니다. 성숙함(프로코페, 진보)이란 ‘똑바로 나아가다’ ‘발전하다.’라는 뜻으로 원래 군대(軍隊) 용어(用語)입니다. 불굴의 노력으로 험난한 지역이나 밀림을 뚫고 길을 내는 전초 부대의 활약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영적인 진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빌1:25 참고) 영적인 지도자는 경건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보다 더 잘 읽고, 더 잘 권하고, 더 잘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성장을 이루고 발전과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요회 뿐만 아니라 센터 사람, 불신자 친구들에게까지 나타내야 합니다. 목자는 끊임없이 진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끊임없는 진보를 위해서는 자족(自足)함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실패로 인한 상처도 씻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잘한 것도 돌아보지 말고 실패도 더 이상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진보를 이루기 위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하여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위대한 진보를 위해서는 작은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이고 모여 시냇물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석공이 성능 좋은 기계로 바위와 암반을 깎는데 거대한 바위와 암반은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망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콩콩 쪼아댈 때 어느새 거대한 바위가 깨어지고 암반이 부서져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 지금부터 작은 일 하나라도 전심전력하여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읽기, 기도하기, 일대일 한 팀 더하기, 소감쓰기, 전도하기 등에서 전심전력하여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내는 2017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훈련 제목을 찾아서 깊이 영접하고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젊은 나이에 영적 지도자가 된 디모데가 어떻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배웠습니다. 목회자(목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로 연단해야 하며, 믿는 자에게 본을 보여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성경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들이 외적인 일보다 먼저 내면적인 투쟁을 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셔서 7부 흥왕한 제자양성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